

영적원리 XXII - 사랑없는 논쟁을 피하라.

1.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의 원리 - 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세상이다.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1:27-28]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하나님의 뜻이 담겨진)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 을 통치하셨다. 질서로 정렬되었고, 아름다운 정렬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온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위탁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질서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에 의해서 깨진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는 존재가 되었다.

*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 의 집합체이다. 바벨탑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높이올려야 하는 인간의 '논리' 에 있다. 논리라는 것은 '구조' 이다. 구조는 '힘'을 만든다. 왜냐하면 구조에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법칙은 힘의 운용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칙은 '정당성' 을 말한다. 정당성은 '증명과 증거' 를 통해 힘을 얻는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다. 그래서 정당성(명분)이 생기면 공감대와 권위를 얻게된다. 그렇게 될 때, 구조를 지탱하는 '논리'는 힘의 원천이 된다.

2. 인간의 역사 - '정당성'의 대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당성' 의 변화이다. 그 당시 힘의 중심축으로 지탱되었던 구조는 이에 대응하는 다른 '논리'가 나타나 먼저 있었던 논리의 구조를 파괴한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자리잡아 그에맞는 동력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우월적 힘을 가진 구조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3. 율법의 구조 - '정당성'

율법은 '법' 이다. 질서이다. 체계이다.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실제적 '구조'가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왜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율법의 구조를 보면 '옳고 그름' 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면 '의'에 대한 정당성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불의'한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율법에는 타협이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지킨 자가 의로움의 힘을 얻고, 지키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로 낙인찍히는 열등한 존재가 된다.

4. 논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자신이 확신하는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며, 예수님과 논쟁하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신다. 피하시든지, 선포하신다. 증명하지도 않으신다.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낌이었다.

[고린도전서 1:22-24]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증명'을 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구조에 대한 합리성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뿌리는 같다.

5. 옳고 그름을 넘어서

[마태복음 5:38-42]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1) 예수님의 가르침

정당성을 넘어서라. 더 큰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세상이 만든 힘의 구조를 부셔버리는 은혜의 구조

예수님은 힘으로 대결하지 않으신다. 힘의 원리의 구조는 끝없이 대항하는 힘의 대결을 통해서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구조는 세상의 힘과 논리를 무력화하는 구조이다. 그 이유는 '힘'을 힘으로 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의 구조에 대응하는 마찰력을 없게 만들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상승될 수 없다.

(3)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논쟁'의 답은 없다.

건설적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소모전 일 뿐이다. 그 이유는 논쟁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은 이미 자기주장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4)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이며, 겸손의 '태도'이다.

가장 중요한 겸손의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나만이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궤변과 다르다. 능력보다, 힘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질서는 '하나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

(5) 진리는 흑백논리가 아니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알고있고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는 바리새인적 태도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고있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라. 섬겨주셨고, 참아주셨고, 인내하셨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제자들이 성숙한 시점에서 모두 알게되었다.

(6)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본질, '태도'를 실제적으로 내 몸에 체화하라.

'오래참음, 온유 등' 모두가 '나'를 향한 속성이지 '남'을 향한 속성이 아니다. 내가 변하면 남이 변한다. 목사가 변하면 교인이 변하고, 지도자가 변하면 백성이 변하고,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한다. 선생님이 변하면 제자가 변하고, 리더가 변하면 따르는 자가 변한다.

(7) 요엘서 말씀을 기억하라

[요엘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찢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영이되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